

화제의 종목 SK바이오팜 2면

공모가 5배, 목표가 2배 애널도 알수없는 적정주가

SK바이오팜 수급, 비정상적 수준 분석
개인투자자의 기대감에 쫓림투자 지적
변동성 커져 합당한 주가 찾기도 어려워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기대감이 SK바이오팜에 대한 비현실적인 쫓림투자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 기업은 특성상 실적보다 연구·개발(R&D) 역량과 성장성이 기업가치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현재 SK바이오팜 수급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도 SK바이오팜에 대한 선풍적인 기업평가를 꺼리고 있다.

◆ 폭등세 언제까지...5거래일 만에 공모가 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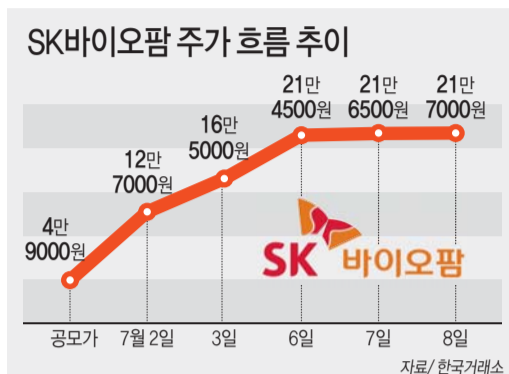
SK바이오팜의 상승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0.23%(500원) 오른 21만70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오전 들어 19만8000원까지 8.55% 떨어지며 상장 5거래일 만에 내림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오후 2시가 넘어서며 상승전환했다.

공모가(4만9000원)보다 4.5배 수준으로 가파른 상승을 한 상태다. 앞서 거래 첫날 시초가인 9만8000원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12만4000원에 거래를 마친 후 6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 거래일(7일)도 0.93%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주위 담는 식이다. 외국인은 상장 첫날인 2일부터 전날까지 6283억원 어치의 SK바이오팜 주식을 팔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도 종목 1위다. 두번째로 많이 팔 셀트리온헬스케어(1966억원)의 3배 이상 매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이 기간 각각 5403억원, 1053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종목을 사들였다.

◆ 적정가치 산정 불가... "추격매수 위험"

전문가들은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꼽히지만 SK바이오팜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발행한 곳은 2곳뿐이다. 유진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목표주가를 각각 10만원, 11만원으로 제시한 것이 전부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진투



자증권은 경쟁 업체인 벨기에 UCB의 고성장 가치를 반영했고, 삼성증권은 수노시와 엑스코 프리 등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잉여현금흐름 증가를 예상해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했다. 미래가치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예측이 목표주가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제약·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SK바이오팜의 경우 단타성 매매공방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현재 합당한 주가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뜰이나 바이오기업 특성상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측정하기 어렵는데 SK바이오팜의 경우 막대한 유동성에 기댄 투기적 성격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항변이다. SK바이오팜에 당일 주가 흐름에 관해 묻자 "합리적인 이유보다는 유동성에서 비롯된 수급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온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도 "현재 투자자가 물리는 것이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주가가 오르니까 계속 더 오를 것 같다는 투기적인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애널리스트들이 주가와 기업가치를 논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기대감만으로 추격매수를 하기에 위험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역기능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결국 공매도는 비판적인 시각으로부터 시작한다. 주가하락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가격 변동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개미와 다른 길 가는 외국인 SK팜 팔고 카카오 갈아타기

SK바이오팜, 3일 연속 상한가 기록
외인, 상장 4일차부터 주식 순매도
개인투자자, 7일에만 1977억 매수

외국인이 SK바이오팜을 팔고 카카오를 사면서 개미(개인투자자)와 엇갈린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SK바이오팜은 코스피 최초 상장 직후 '3연상' (3거래일 연속 상한가)으로 21만 6500원의 주가를 기록했다. 주가가 공모가인 4만9000원보다 4배 이상 상승한 것. 지난 7일 한국거래소는 SK바이오팜이 3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했다는 이유로 주가 급등에 따른 투자주의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은 거래대금 기준 SK바이오팜을 가장 많이 순매도하며 상장 4일차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SK바이오팜이 최고가를 경신한 지난 7일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SK바이오팜을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냈는데, 이날 순매도 금액은 207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197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그밖에 개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 위치해 있는 카카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일에서 7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 LG 생활건강, CJ제일제당, 셀트리온 등 실적개선 주들과 카카오, 넷마블 등 비대면(언택트) 관련 주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인은 ▲카카오 1527억원 ▲삼성전자우 703억원 ▲포스코 673억원 ▲삼성전자 382억원 순으로 사들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액 52조원에 영업이익 8조1000억원으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규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언택트 생활 습관화에 따라 비대면 IT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지난 2일 정일문(오른쪽 두번째부터)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조대식 SK SU PEX추구협의회 의장,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이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상장 기념식에서 시초가를 알아보는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호조세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표적인 언택트주인 카카오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8월 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카카오는 8일 전날보다 1만7500원(5.64%) 오른 32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월 기준 카카오의 최고가는 17만1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카카오의 2분기 실적은 매출 9139억원, 영업이익 952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6%, 135% 상승한 수치다. 호조세에 다가올 3분기에는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비대면이라는 특성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카카오의) 주가를 견인했다"며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집중해왔던 콘텐츠, 쇼핑, 금융 등 분야에서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호적인 투자심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아진다"며 "이익 변화를 주도하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유명 관광지 보다 마음 편한 여행... 비접촉 휴가 대세로

코로나 사태에 휴가 트렌드 급변
독채·캠핑 등 거리두기 여행 인기
야외활동 자제하고 랜선 여행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여름 휴가 트렌드마저 바꿔놓았다. 해외는 물론, 유명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여행 보다는 사람이 적은 곳을 찾아다니는 비접촉 캠핑이 대세다.

아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방구석 랜선여행을 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올해 들어(1월 1일~7월 6일) 여행 상품 판매량을 작년 동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해외여행 상품은 77% 감소한 반면 국내 숙박 예약 판매량은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는 해외 관광도시 및 국내 특급호텔이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인기 해외여행지는 오사카, 다낭, 후쿠오카 순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관광지가 주를 이뤘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인천행 항공 판매량이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는 국내 독채 펜션 및 캠핑 등 사회적거리를 두면서 힐링 할 수 있는 여행지가 단연 인기다. 상반기 펜션/캠핑 판매량은 작년 대비 54%가 증가해 전체 여행 상품 중 가장 큰 신장세를 보였다. 국내 호텔/레지던스 역시 8% 증가했다.

여름 휴가 기간이 다가오는 최근 한

달(6월 7일~7월 6일) 동안 국내 펜션/캠핑장의 판매량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30% ↑), 전라(29% ↑), 충청(6% ↑) 순으로 인기를 끌었다. 같은 기간 국내 호텔/레지던스 판매량도 7% 신장했다. 특히 충청도(70% ↑), 강원도(13% ↑), 제주도(12% ↑), 전라도(11% ↑) 등 비교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건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선호도가 높았다.

주말을 이용한 캠핑도 증가 추세다. 특히 자동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이 올해의 여행 트렌드로 부상 중이다.

차박은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인기다. 인스타그램에 '#차박' 해시

태그를 단 게시물은 11만개가 넘는다.

차박 캠핑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다. 낮선 지역에 여행을 나선 운전자 이동 경로의 주요소 위치와 가격비교 검색이 가능한 국내 최대 모바일 주유앱 오원이가 대표적이다. 최근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이 늘면서 2020년 1분기 대비 2분기 1일 평균 주유 건수와 분기 전체 주유 금액 모두 1.5배가량 증가했다.

유통업계는 여름 휴가를 집에서 보내는 집콕족과 랜선 여행족들을 겨냥한 이색 상품을 내놓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항공기내식을 콘셉트로 기획한 '기내식 도시락 시리즈 3종(포크 플리

즈, 치킨 플리즈, 비프 플리즈)'을 선보였다. 기내식 특유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 일반 플라스틱 용기 대신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마켓컬리는 실제 해외 여행 때의 맛을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아시아안 푸드와 이색 디저트 70여가지를 한데 모아 최대 40% 할인해 선보이는 '해외 미식 여행' 기획전을 오는 10일까지 연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국내 여행이나 대리 만족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을 활용해 틈틈이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행이나 캠핑, 또는 랜선 여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